

대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대한 특성

노효련*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e-mail:withtry@kangwon.ac.kr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in Selecting Career

Hyo-lyun Roh*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대학교 신입생들의 진로선택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1개 학부, 16개 학과의 2011년 신입생 750명이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학 및 학과 선택과 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였다. 지원한 대학의 수는 3 ~ 4개가 가장 많았으며, 고 3 시기에 대학과 전공을 주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보다 학과에 비중을 두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로선택 유형에서는 가족형이 가장 많았고 학교형, 독립형, 학원형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 선택시의 기준은 적성고려, 취업전망 순이었고, 입학하는 학과에 대해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사전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었다. 대학 선택시 기준은 합격 가능성이 높은 곳을 주로 선택하고 있었다. 고교교사/학교와 인터넷을 통하여 대학을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TV/라디오, 신문과 같은 매체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아주 적었다. 따라서, 진로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부모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과 전공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고교와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를 이용한 홍보 전략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서론

고등교육 수요의 후퇴에 따른 대학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근래의 대학에서는 우수 신입생 확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다. 또한, 교육시장의 개방과 대학 복수지원, 사정관 입학, 수시모집 등의 전형방법이 다양화가 되어지면서 학교 선택의 폭이 넓어져 안정적인 대학 지원이 가능해졌다[1].

즉, 교육시장이 학교중심(sellers market)에서 수요자인 학생중심(buyers market)으로 변화한 것이다[2,3]. 또한, 최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국·공립 대학의 통합과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중단 및 입학금 대출제한을 통하여 대학의 재구조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재구조화는 고등교육수요의 후퇴에 근거를 두고 있다[3]. 따라서 교육시장은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학의 위기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보다 대학의 입학생수가 더 많아진 1990년대 후반부터 표면화되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60만명 초반 대를 유지하다 2016년에 5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4]. 위기감을 느낀 대

학들은 교육의 여건과 질의 향상을 통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우수한 신입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5]. 21세기의 대학은 대학행정가나 교수중심 체제가 아닌 학생고객 시대에 걸맞은 고객중심 대학의 특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이 갖고 있는 자원과 주변환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대학의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그 중심은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6].

우리나라의 1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 중 46%가 '직업'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7], 이 시기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준비 시기이며, 인생에서 가장 활발하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진로 선택과 준비가 다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8]. 노동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기라는 청년기의 중요성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취업난이라는 사회 현상으로 인하여 더욱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입시 설명회, 고교방문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 수요자

들은 이러한 정보를 의존하여 진로 선택을 하게 된다. 대학진학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선택에 있어서 대부분의 고교생은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자신의 적성이나 가치관, 진로 등을 탐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나 경험을 갖지 못하여 자신의 성격, 적성, 흥미, 능력 등과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대학 진학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 교사, 또는 친구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8.9].

따라서 대학은 수요자들이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이용하는 정보의 선택유형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신입생 유치와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및 학과 선택과 관계된 조사를 실시하여 신입생의 진로선택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대학발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1학년도 신입생 754명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1년 3월 24일부터 31일까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학생들이 직접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였다. 정원미와 이재신[10]의 연구를 참조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임언(2008)[8]의 연구를 참조하여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는 각 학과 사무실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배부된 후 수거되었다. 수거된 설문지 중 누락이 많이 되어 있는 4부를 제외하고 750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기호화한 후 통계 처리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4문항, 대학과 관련된 문항 6개, 학과와 관련된 문항 5개로 구성하였다. 이 중 일부 문항은 다중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학에 관한 내용은 대학 지원했던 대학수, 본 교 지원동기, 대학인지 계기, 대학지원결정시기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학과선택에 관한 내용은 학과선택시기, 학과선택시 영향을 준 사람, 학과 지원동기, 학과 인지도에 관한 질문이었다.[표 1]. 최종 제작된 설문지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의 α 값을 사용해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에 응한 학생들은 공학 대학 소속이 161명,

인문사회 대학이 206명, 보건대학이 383명이었다. 총 응답자는 750명으로 남학생 348명(46.4%), 여학생 402명(53.6%)으로 여학생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20.3±2.4세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임언(2008)[8]의 연구에서 제시한 진로선택 유형을 참고로 하여 진로선택 유형을 가정형, 학교형, 학원형, 독립형으로 구분하였다.

2.2. 통계 분석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과 학과 대학 선택에 관한 내용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성별과 대학, 학과와 진로선택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학적인 유의수준은 $p<.05$ 로 하여 통계적인 결정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지원했던 대학교 수

[표 1] 지원 대학 % (n)

	1개	2개	3개	4개이상	계	
공학대학	0.8 (6)	2.4 (18)	9.2 (69)	8.9 (67)	21.5 (161)	$\chi^2=30.98$ $p=0.00$
인문사회 대학	1.5 (11)	2.7 (20)	11.6 (87)	11.7 (88)	27.5 (206)	
보건대학	1.5 (11)	3.3 (25)	14.6 (109)	31.7 (238)	51.1 (383)	
전체	3.7 (28)	8.4 (63)	35.4 (265)	52.3 (392)	100 (750)	

3.2 진로 선택시 학과와 학교의 비중

[표 2] 진로 선택시 학교와 학과의 비중 n (%)

	학교	학과	계	
공학대학	40 (5.3)	121 (16.1)	161 (21.5)	$\chi^2=30.54$ $p=0.00$
인문사회 대학	72 (9.6)	134 (17.9)	206 (27.5)	
보건대학	58 (7.7)	325 (43.3)	383 (51.1)	
전체	170 (22.7)	580 (77.3)	750 (100)	

3.3 진로선택유형

진로 선택 유형은 남학생과 여학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학생에서는 가족형과 학교형

이 유사하게 나타났고 여학생에서는 가족형, 독립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학생들에서는 가족형이 가장 많았고 학교형, 독립형, 학원형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보건대학에서 가족형이 가장 많았다.

4. 고 찰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선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몇 곳의 대학교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4개 이상을 지원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개를 지원하여서 3 ~ 4개의 대학을 지원한 경우가 87.7%로 나타났다. 김성문(2003)[11]의 연구에서도 3 개의 대학을 지원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4개를 지원한 경우는 가장 적게 나타나서 본 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지원한 대학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대학 입학전형 체제에서는 수시 1, 2차와 정시에 지원할 수 있고 이러한 입학전형 내에서도 복수지원이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러 차례의 지원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로를 선택할 때 학과와 학교 중 어느 부분을 더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과에 비중을 두었다가 전체 신입생의 77.3%로 나타났고 특히, 보건대학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 결정에 있어서 학교보다 전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쟁력있는 학과의 개발과 발전은 신입생 확보를 위한 주요한 요인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위한 투자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진로 선택 유형에서 본 연구에서 가족형이 가장 많았고 학교형, 독립형, 학원형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2009)[1]에서는 가족 및 친척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고, 임연(2008)[8]의 연구에서도 가족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교형이 높게 나타나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정윤경(2005)[12]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이며, 학교선생님, 친구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의 남학생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부모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의 진로지도가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학생은 가족형과 학교형이 유사하게 나타났고 여학생에서는 가족형, 독립형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유명미(2005)[13]에 의하면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사회적 지지를 더 받고 자아정체감이 높으며 진로결정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지원동기와 진로선택 유형과의 관계에서는 가족형은 적성고려와 취업전망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형에서는 적성고려, 학원형에서는 취업전망, 독립형에서는 적성고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학생들의 진로 결정 수준을 향상시켜서 대학생들의 적응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우는 것은 대학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진로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부모 혹은 가족들과의 진로상담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하며 나아가 또래와의 중재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13].

참고문헌

- [1] Jeju university, "Actual condition survey on freshman of the year 2008", Jeju university, 2008.
- [2] 이경희, 권준모. "대학생의 전공선택 자율성과 대학생활",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Vol. 2, pp. 95-11, 1996.
- [3] Pak. J. M. Jun C. N., Kwon M. O.,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election for Freshmen and Suggestion of Marketing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Colleges". Korea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Vol. 34, pp. 373-399. 2003.
- [4] Seoul newspaper. 2011년 5월 3일 pp. 24. 2011.
- [5] 소황옥, 전철은, 이호응. "2004 신입생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Vol. 11. pp. 1-36, 2004.
- [6] Park HA. "Research of supply of Long and Short-Term Health Workforc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990.
- [7]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 [8] Eon Lim., "Differences among Groups Classified Based on Social Supporters in Choosing College Major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27, No.3, pp. 63-84, 2008.
- [9] Park, C. H.,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Daegu university, 2009.

- [10] Jeong, W M, Lee, J S, "Study on the Criteria for Selection and Life of College by Among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in the University and College" KSOT Vol. 9, No. 1, pp. 55-6, 2001.
- [11] Kim. S. M., "A study on the admission procedure to the physical education-related courses in the universit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3.
- [12] 정윤경.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인, 한국교육고용패널학술대회논문, 2005.
- [13] Yu, Y. M., "The Influence of the Degree of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for Social Support on Career Decision Level through Self-Identity",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05.